

The Mediating Effect of Happ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reativity in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¹⁾

Liu, Yumin (Dong-A University, Doctoral Student)
Cho, Gyu-Pan²⁾ (Dong-A University, Professor)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happ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reativity in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287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were selected to conduct the survey. Then the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figure out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According to the procedures Baron and Kenny suggested in 1986,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is conducted to measure the mediating effect of happ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reativ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grit, happiness and creativity. Second, happiness exert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reativity. The results suggest that grit as well as happines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middle school students' creativity.

Key Words : Grit, happiness, creativity,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1)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grants from Dong-A University.

2) Corresponding Author: Cho, Gyu-Pan, Professor, Dong-A University, 37, Nakdong-Daero 550 Beon-Gil, Saha-Gu, Busan, Korea, 49315 / E-mail: gyupanc@dau.ac.kr

중국 중학생의 그릿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¹⁾

유옥민 (동아대학교, 박사과정생)

조규판²⁾ (동아대학교, 교수)

< 요약 >

본 연구는 중국 중학생의 그릿, 행복감과 창의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중학생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변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릿과 행복감, 창의성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복감은 그릿과 창의성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중학생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릿과 함께 행복감을 증진 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그릿, 행복감, 창의성 성향, 중국 중학생

1) 이 논문은 2020년 동아대학교의 학술지원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2) 교신저자: 조규판, 교수, (49315)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 E-mail: gyupanc@dau.ac.kr
논문투고일자: 2020. 5. 8 / 심사일자: 2020. 5. 14 / 게재확정일자: 2020. 6. 1

I. 서론

창의성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창의성이 청소년이 성공을 이루는 핵심 능력이자(Florida, 2002), 미래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창의성 개발이 각 국가 학교 교육과정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래사회에서의 창의성의 중요성과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Minister of Education of Korea(2015)가 초등학교부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듯이 중국 교육부도 교육사업十三五발전계획(The 13th Five-year Development Pla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7)에서 초등학교부터 학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 및 혁신의식의 유발을 중시하고 창의적 인재의 양성 및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중학생의 창의성 발달 현황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창의성 수준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Ren, 2017; Xu, 2019), 그들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 등 창의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철학적, 심리학적 관점 등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힘들다. Amabile(1990)은 창의성에 대해 새롭고 유용한 발상이나 문제 해결방법 등을 생각해 내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였다. Nicholls(1972)는 창의성이란 뛰어난 사람들만이 가지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는 양적인 자산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였다. Plucker, Beghetto, & Dow(2004)는 창의성을 개인이나 집단이 새롭고 유용한 것으로 지각될 수 있는 산물을 창출하는 과정, 적성,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주장한다. 창의성에 대해 현대적 접근인 Sternberg & Lubart(1991), Urban(1990)의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ternberg & Lubart(1991)는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에 대해 지적인 측면(사고의 유창성을 비롯한 일반적인 지적능력), 인지 형태적 측면(사고과정이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는 것)과 인성/동기측면(융통성, 인내, 모험심, 도전정신, 성취동기 등)으로 나누고 창의적인 사람은 이 세 가지 측면의 특성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만들어진다고 했다. Urban(1990)은 창의성을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의 결합이라 주장했으며, 인지적인 요소로 일반적 지식과 생각기반, 특정 영역에서의 지식기반과 생각 및 작업 기능, 확산적 사고와 활동을 제시하였으며, 정의적 요소로 초점 맞추기와 과제집착력, 개방성과 애매모호함에 대한 참을성, 동기 및 동기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창의성을 정의하는데 창의적 인간의 성격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있다. Guilford(1959)는 창의적 인간의 성격 특성으로 독립성, 자율성, 자기긍정성, 자기수용성, 모험성, 용기, 풍

부한 상황 적응력을 제시하였다. 또한, Piirto(1992)는 양성 성향, 상상력, 통찰성, 개방성, 민감성, 끈기, 융통성, 모험하기, 자기효능감, 애매모호한 상황에 대한 참을성, 의지 등을 창의적 인간의 특성으로 들고 있다(Cho, Ahn, & Han, 2005). Williams(1990)는 창의적인 사람이 행동적 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서도 창의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호기심, 상상력, 도전심, 모험심의 특성이 포함된 창의적 성향을 구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창의성의 정의적 특성을 중심으로 창의성의 영향요소 및 작용 기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창의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가정, 학교 등 환경적 요인(Hah, 2013; Jang & Cho, 2010; Kim & Choi, 2014; Kim, 2010; Liu, Zhang, & Zhang, 2013)과 동기, 기질, 자기조절력, 마인드셋, 성격, 그릿 등 개인 내적 요인(Kang & Hyun, 2004; Kim & Jo, 2016; Kim, 2005; Lim, 2017; Paul & Elder, 2009; Sternberg, 1988)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개인 내적 특성 중 비인지적 요인을 중심으로 창의성에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고자 한다. 인간의 내적 특성에 주목을 하고 내적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창의성 또는 창의적 성향과 더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개인 내적변인 중 끈기 있게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그릿(Grit)의 창의성에 대한 영향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Lee, Lee, & Tak, 2017). 그 이유는 그릿이 무엇을 성취하거나 성공하는 데 있어서 긍정심리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긍정적 역량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Bowman, Hill, Denson, & Bronkima, 2015; Duckworth, Kirby, Tsukayama, Berstein, & Ericsson, 2011).

그릿은 2007년 미국심리학자 Duckworth에 의해 처음 소개되어 이후 각 영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그릿은 미국 교육부 핵심역량으로 지정되면서(Shechtman, DeBarger, Dornsife, Rosier, & Yarnall, 2013), 21세기 건강한 발달과업을 위한 중요한 능력의 하나로도 인정받고 있다(West, et al., 2014). 그릿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열정과 인내이며 흥미 일관성과 노력 지속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흥미 일관성은 자신이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특성이며, 노력 지속성은 긴 시간에 걸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특성을 말한다(Duckworth & Quinn, 2009).

그릿은 학업수행, 학습동기, 성취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긍정심리학과 관련된 심리적 자본 및 삶의 만족도, 주관행복감을 높이고,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성 증진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Datu, Valdez, & King, 2016; Jiang, Jiang, Du, Gu, & Sun, 2018; Lim, 2017; Singh & Jha, 2008). 우수한 인격 특질인 그릿이 지능, 적성, 재능보다 성취에 더 높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Cho, Kwon, & Jung, 2017). 그릿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탁월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 특성의 하나로(Duckworth et al., 2011), 최

근에는 그릿을 창의성과 관련지어 연구를 시작하면서 창의성 관련 주요 변인으로 이유가 되고 있(Je, 2018; Lim, 2017; Pyo, 2018).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 대해 탐색해 보면, 일반적으로 창의성의 중요한 요소로 내적 동기나 흥미가 제시되고(Amabile, 1996), 장기간에 걸쳐 창의성의 발현을 위해서는 여러 좌절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끈기와 지속적인 노력 등의 정신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견해(Csikszentmihalyi, 1996; Ivcevic & Brackett, 2014; Lim, 2017)에서 그릿과 창의성은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릿이 포함하는 목표 실현을 위한 관심의 유지나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지속성 등이 창의성과 관련 있다는 결과들(Hah, 2003; Sternberg & Lubart, 1991)은 그릿과 창의성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다. 예를 들어, Lim(2017)은 교육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과 창의적 성향, 창의적 사고는 서로 정적 상관이 있으며 특히 그릿이 창의적 성향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한다고 하였다. Pyo(2018)는 그릿은 학문적 창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학습몰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학문적 창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그릿은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창의성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Sternberg & Lubart(1991, 1996)의 투자이론(Investment Theory)의 관점을 통해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Lim, 2017). 투자이론에 따르면 창의적인 사람은 불확실성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그것의 가치를 자신과 주변에 설득하고 꾸준한 노력에 의해 성과를 취한다. 이런 투자과정은 장기간의 노력, 인내, 전략 등이 요구된다. 그릿은 투자이론에서 말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성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Lim, 2017). 다시 말하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계속 흥미를 유지하고 열정을 잃지 않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릿은 결국 창의적인 사고와 몰입을 통해 아이디어를 산출하게 되는 창의성 발현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Je, 2018).

최근 창의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 및 정신건강 측면에서 효과와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Je, 2018). 심리적 안녕감이나 행복감은 비슷한 개념으로 창의성과 같이 모두 긍정심리학의 중요한 변인이다. Yun & Yoo(2015)는 일상적 창의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Jung(2014)은 일상적 창의성이 긍정적 문제해결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현재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긍정정서,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행복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White(1990)는 교육의 목적이 바로 학습자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행복감은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이자 긍정심리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Diener(1984)는 행복감이란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삶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와 정서적 경험(높은 긍정적 정서와 낮은 부정적 정서)으로 이루어진 다면적 구성체라고 하였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 사회관계를 맺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Fredrickson, Mancuso, Branigan, & Tugade, 1999).

어린 시절 행복감을 많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개체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Yang, 2008). 최근 학생의 행복감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많아지면서 행복감이 학생의 생활 속 여러 측면에 긍정 작용을 발휘하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Kim(2011)은 행복감은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지적, 신체적 혜택을 한껏 누리게 해준다고 하였다. 행복감은 즐거움을 인식하고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긍정적 정서를 일컫기 때문에 특히 창의성이 정의적 특성과 관계를 가지며(Shin & Koo, 2010), 행복감은 모든 것에 있어 출발점으로 간주된다.

높은 행복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창의적 성격을 보이며, 독창성, 대안적 문제해결능력, 모험적 자유추구와 같은 일상적 창의력이 높았다(Shin & Koo, 2010). 중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상적인 창의성 행동과 주관적 행복감 간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발견했으며(Yan, 2019), Park(2013)의 연구에서도 행복과 창의성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yubomirsky, King, & Diener(2005)의 연구에서도 행복과 긍정적 정서가 모두 창의성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복의 정서적 요소인 긍정정서는 정보의 통합과 인지적 융통성을 촉진시키고 더 포괄적인 사고를 유발하며, 긍정정서가 높은 사람은 부정정서가 높은 사람보다 창의성 검사 점수가 더 높았다(Fredrickson, 2001). 즉, 행복감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서상태가 창의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적극적인 정서상태는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Conner & Silvia, 2015; Fredrickson, 2001; Zhang, Ding, & Wang, 2017). 이상에서 보듯이, 행복감과 창의성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고 행복감이 창의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릿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Duckworth, Quinn, & Seligman(2009)은 그릿과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으며, Singh & Jha(2008)도 그릿과 삶의 만족도, 행복감 그리고 긍정적 정서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장기 목표를 이끄는 대표적인 힘인 그릿을 통해 목표 달성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난관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지를 이어 나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충분히 체험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이 강해지기도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험이 쌓이면서 개인의 성장과 진보를 느끼게 되고 주변의 지지와 칭찬을 받으면서 자존감, 자아효능감, 성취감도 늘기 때문에 만족감과 행복감이 향상되게 된다. 즉, 장기간의 목표 추구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그릿을 통해 비교적 높은 안녕감을 유지하게 된다(Duckworth & Gross, 2014). 그릿으로 인하여

습득된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이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며(Cho, 2017), 행복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ho, 2017; Kim, 2018; Park, Pyo, & Kim, 2019; Salles, Cohen, & Mueller, 2014).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그릿과 창의성, 그릿과 행복감, 행복감과 창의성 간에는 정적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릿은 행복감을 통하여 창의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쉽게도 중국 중학생 대상으로 창의성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니 그릿과 행복감을 영향요소로 진행된 선행연구가 미흡한 실태이다. 학생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흔하지만 그릿은 최근 몇 년 새롭게 나오는 연구주제로 중국에서 이를 창의성과 같이 본 연구는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릿과 비슷한 개념인 끈기와 자아탄력성(Ha, Lim, & Hwang, 2017)은 직원의 창의성과 정적 관계가 있으며 창의성에 예측력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있다(Wang & Zhang, 2017).

중학생 시절은 창의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여러 중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단 연구에서 중학생 시절은 창의성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밝히고 있다(Hu, Hu, & Han, 2006; Wo, Wang, Liu, & Lin, 2009). 중학교 이후의 개인의 창의적 수준은 중학교 시절에 나타난 창의성 수준에 달려 있다는 연구 결과(Dong, 1993)는 중학생 시절의 창의성 육성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생들은 사회비교 의식이 강해져서 외부의 평가와 경쟁에 신경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창의적인 과제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Eccles, Midgley, & Adler, 1984; Rosenholtz & Simpson, 1984). 또한, 사춘기의 중학생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창의적 활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창의적인 동기 향상도 어려운 시기이다. 중국 중학생들의 '中考'(고등학교 입학시험)때문에 중학교 교육과정의 교수 방식은 표준적이고 통일적인 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생의 확산적 사고를 증진시키기에는 매우 불리하다(Xu, 2019).

중국과 한국은 이웃나라로서 모두 동양권에 속해서 전통적으로 유사점이 많고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두 나라 모두 높은 교육열로 학생들이 큰 학업부담을 겪고 있어 창의성 발달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먼저 중국 중학생의 그릿과 행복감, 창의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릿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국 중학생의 그릿, 행복감과 창의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중국 중학생의 그릿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국 산둥성 W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1-3학년 학생 30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18부를 제외하고 28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남학생이 172명, 여학생이 115명이었으며 1학년 74명, 2학년 81명, 3학년 132명이었다. 중국 산둥성 W시는 한국의 창원시나 천안시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로 연구대상이 되는 중학교는 일반 사립 중학교이다.

2. 측정도구

가. 그릿 척도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그릿을 측정하기 위하여 Duckworth et al.(2007)이 개발한 그릿 척도를 중국 학자 Xie, Wang, & Zhao(201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번안한 척도의 신뢰도는 .76이었으며 중국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릿 척도는 노력지속성 6문항(예: 나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목표를 달성한 적이 있다)과 흥미일관성 6문항(예: 나의 관심사는 매년 달라진다)의 2개 하위요인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73이었으며,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각 .72와 .69였다.

나. 행복감 척도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지적 측면에서의 삶의 만족도 척도(SWLS)와 정서적 측면에서의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PANAS-R)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SWLS는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반응양식은 Likert 7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완전히 그렇다: 7점까지)로 되어 있다. 정서적 요소에 해당되는 PANAS-R은 Watson, Clark, & Tellegen(1988)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중국 학자 Qiu, Zheng, & Wang(2008)이 번안한 것으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나타내는 각각의 단어에 대해 본인이 지난주에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응답하도록 측정했다. 긍

정정서와 부정정서는 각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양식은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의 신뢰도는 .73, 긍정정서는 .79, 부정정서는 .77, 전체 행복감 척도는 .74였다. 본 연구에서 행복감 점수는 삶의 만족도의 z점수와 긍정정서의 Z점수를 더한 후 부정정서의 z점수 빼 후 얻은 점수이며(Thrash, Elliot, Maruskin, & Cassidy, 2010),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많음을 의미한다.

다. 창의성 척도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Lin & Wang(1994)이 Williams(1990)에 의해 개발한 창의적 성향 진단 척도(Creativity Assessment Packet)를 번안한 것을 사용했다. 창의적 성향 진단 척도는 모험성(예: 새 게임이나 활동을 탐색하는 건 나에게 재미있는 일이다), 호기심(예: 나는 남이 생각하지 않는 문제를 묻는 것을 좋아한다), 상상력(예: 나는 인간이 200년 전의 생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도전심(예: 정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의 4개 하위요인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양식은 Likert 3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부분적으로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3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79였으며, 하위요인인 모험성은 .59, 호기심은 .66, 상상력은 .62, 도전심은 .67이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및 설문조사방법을 담임교사들에게 설명한 후 2019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에 걸쳐 담임교사가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중학생의 그릿, 행복감, 창의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중학생의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세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Sobel test와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스트래핑 표본 값은 5000개로 설정하였으며, 유의환률 검사는 BC법(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을 사용하였다. 이때 신뢰구간 내 간접효과 상하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해석된다.

Ⅲ. 연구결과

1. 그릿, 행복감, 창의성 간의 관계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계수 및 기술 통계는 <표 1>과 같다.

<표 1> 그릿, 행복감, 창의성 간의 관계(N=287)

	그릿	행복감	창의성
그릿	1.00		
행복감	.37**	1.00	
창의성	.23**	.20**	1.00
<i>M</i>	3.20	-.02	2.33
<i>SD</i>	.67	2.00	.24
최대	4.83	4.40	2.80
최소	1.25	-6.64	1.50
왜도	-.10	-.37	-.61
첨도	-.13	.01	.32

** $p < .01$ 행복감은 z점수로 변환한 후의 수치임

변인들의 왜도의 범위는 절대값 .01에서 .61, 첨도는 절대값 .01에서 .32으로 정규성의 전제조건(왜도는 절대값 2이하, 첨도는 7이하, Finch, West, & McKinnon, 1997)을 만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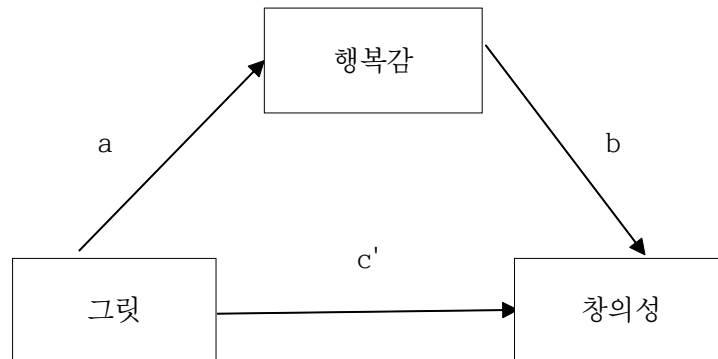
상관 분석 결과를 보면, 그릿과 행복감($r=.37, p<.01$), 그릿과 창의성($r=.23, p<.01$)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행복감과 창의성($r=.20, p<.01$)간에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

중학생의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되고,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되며, 3단계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감소하여야 한다(Moon, Park, & Lee, 2016). 이때 매개변인이 추가된 모형인 3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보다 감소하면서 더 이상 유의하지 않으면 이를 완전매개라 하고, 두 번째 단계보다 감소하지만 여전히 유의하다면 이를 부

분매개라고 한다(Lee, Do, & Song, 2016). 또한, 본 연구에서 변인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와 공차값(tolerance)을 살펴본 결과, VIF값은 모두 10이하였고 공차값이 0.1보다 크게 나타나 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이론을 바탕으로 그릿을 독립변수로 하고, 창의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행복감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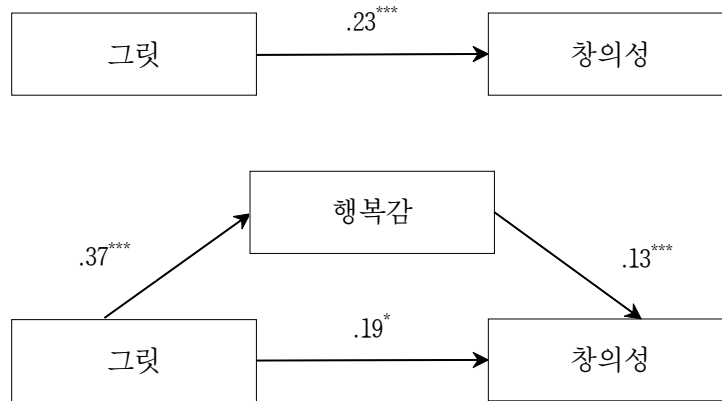
[그림 1] 매개효과 모형

회귀분석 과정을 통하여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2> 및 [그림 2]와 같다.

<표 2>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N=287)

단계	변인	B	SE	β	R^2	F
단계1 (독립→매개)	그릿→행복감	1.12	.16	.37	.139	46.183***
단계2 (독립→종속)	그릿→창의성	.08	.02	.23	.054	16.257***
단계3 (독립·매개 → 종속)	그릿→창의성	.07	.02	.19	.068	10.307*
	행복감→창의성	.02	.01	.13		

* $p < .05$, *** $p < .001$



[그림 2]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모형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1단계에서 그릿이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7, p<.001$). 2단계에서 그릿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23, p<.001$). 3단계에서 그릿과 행복감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의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는 독립변인인 그릿이 종속변인인 창의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19, p<.05$), 그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보다 감소하여($\beta=.23 \rightarrow \beta=.19$),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이 창의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1982)의 z공식에 의하면, z의 절대값이 1.96의 절대값보다 클 때, 유의확률 .05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본다. Sobel test를 검증한 결과 z값이 2.28($p<.05$)로 그릿과 창의성간의 관계에 있어서 행복감의 부분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스트레핑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표 4>와 같이 95%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복감이 그릿과 창의성을 매개하는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표 3>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 결과(표준화 계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유의도검증 (95% 신뢰구간)	
				하위값	상위값
그릿 → 행복감 → 창의성	.067	.017	.084	.003	.034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먼저 그릿과 행복감, 창의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난 그릿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행복감이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과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릿과 행복감, 창의성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Je(2019)가 대학생과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그릿, 일상적 창의성, 삶 만족, 긍정정서 간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고 또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창의적 인성, 행복감, 그릿 간에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 결과(Seo & Eom, 2019)와 일치한다. 먼저, 그릿과 행복감 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는 대학생의 그릿은 삶 만족도, 행복감, 긍정정서와 정적 상관을 부정정서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결과(Singh & Jha, 2008)와 일치한다. 또 Zhang(2016)이 중국 초·중 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한 그릿이 행복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다. 또한, 그릿이 긍정정서, 행복감, 삶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많은 선행연구들(Choi & Yang, 2018; Crede, Tynan, & Harms, 2017; Pyo, 2018; Singh & Jha, 2008)도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상 결과를 보면 그릿이 높은 사람이 행복감도 높으며 그릿은 꾸준한 노력과 인내, 지속적인 흥미와 열정으로 삶을 긍정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하는 행복한 심리적 자산을 만들게 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릿과 창의성 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그릿이 높을수록 창의성 발휘에 유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릿이 높은 학생일수록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내재적 동기가 높고 행동조절을 잘 하며(Hah & Park, 2018), 노력과 인내를 통해 그들의 새로운 사고와 혁신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끈질기게 고수한다(Sternberg, 2012)는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내재적 동기나 흥미는 창의성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Amabile, 1996).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경쟁이나 평가 등으로 인해 학생의 내재적 동기와 흥미를 약화시키고 있다(Deci, Koestner, & Ryan, 1999). 이러한 흥미부재의 상황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지속성이 필요하며(Ivcevic & Brackett, 2015), 이는 바로 그릿이 강조한 목표를 위한 노력 지속성 특성으로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Jung(2019)의 영재중학생과 일반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과 창의적인 인성 간에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 그릿은 창의적 사고와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Lim(2017)의 연구 결과, 그리고 Rojas & Usher(2012)의 그림이 창의성, 그리고 수학적 창의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창의적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열정을 잃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노력으로 지속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확률은 높아진다.

행복감과 창의성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복한 사람이 창의적 성향이 더 많이 보인다. Park(2008)은 성인기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행복감과 창의성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Koo & Kim(2013)은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창의성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Zou, Zhang, & Ma(2017)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원의 정서행복감이 그들의 창의적인 행동과 관련성이 있고 긍정정서가 높은 사람이 창의적인 사고 및 행동도 많이 한다고 하였다. Shin & Koo(2010)는 실험을 통해 긍정적 정서(행복)가 유발된 집단은 부정적 정서(슬픔)가 유발된 집단보다 창의력 검사 점수가 높으며 행복한 사람이 더 창의적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긍정적 정서가 창의적 사고의 기본이 되는 확산적 사고를 촉진한다는 Fredrickson(2001)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연구 결과이다.

둘째, 중학생의 그림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그림이 행복감과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고, 행복감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에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매개효과 검정 기준에 위반되지 않아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행복감이 그림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즉, 중학생의 그림이 창의성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통해 창의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행복감이 그림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함으로 중학생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림의 하위요인인 지속적인 노력과 일관적인 흥미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림을 통해 행복감을 비롯한 적극적 심리적 자산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Cho & Yung(2018)의 연구에서는 그림은 그 자체로도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만, 여가활동을 통한 경험들이 개인의 내면에 긍정적인 심리자산으로 자리 잡게 돕는 역할을 한다. 이는 중학생에게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즐거움, 만족감, 신기함 등 긍정정서와 행복감을 많이 느끼도록 하면서 그들의 확산적 사고를 촉진하고 호기심, 도전심, 모험심, 상상력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람이 행복감을 많이 느낄 때 확산적 사고를 하여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떠올리고, 새로운 개념과 경험에도 자주 열린 마음으로 포괄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하며 행복한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창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Shin & Koo, 2010). 또한,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

며(Kim, 2011), 자아효능감이 높고 주어진 일에 몰입함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창의적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더 높다.

한편, 그릿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Park, Pyo, & Kim(2019)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릿은 개체가 곤경 속에서 보호요인으로 열정을 잃지 않고 꾸준히 긍정적인 심리자원을 제공해준다. 그릿이 높은 사람은 적절한 자아조절을 통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며, 자아성장과 진보를 중시하여 목표달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시에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 사회지지가 많아지면서 삶의 만족도 및 긍정정서가 올라가 행복감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노력 및 관심이 포함된 높은 그릿과 행복감이라는 두 가지의 역량을 잘 연결시켜 주면 중학생의 창의성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그릿이 사람들에게 열정, 끈기 등이 포함된 긍정적인 심리자원을 전달하고 장기간의 목표달성 과정에서 실패와 도전을 극복하는 정신파워를 제공하며 성공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도전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로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는 것은 정서적, 인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칭찬을 받게 되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과제에 더 몰두하게 될 것이다. 이 몰입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즐거움과 행복감이 수반되고 긍정정서가 확산적, 긍정적 사고를 촉진해서 창의적 산물을 만들어 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릿이 우수한 인격 특질로 Peterson, Ruch, Beermann, Park, & Seligman(2007)이 제시한 성격 강점(strengths of character)이론의 내용을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성격강점이론에 따르면 인격 특질은 개체의 행동, 정서, 인지 속에서 반응되고 있어 사람의 성취에 영향을 준다. 그릿이 바로 이런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창의적 목표달성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성격강점 이론에 경험적으로 지지하며 우수 인격특질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그릿이 끈기와 열정을 내포한 우수한 인격특질의 역할을 발휘하여 창의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행복감 증진을 통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중국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그들의 그릿과 행복감, 창의성을 같이 본 연구가 미흡해서 선행연구와 비교하는데 좀 무리가 있어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하길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중학생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릿, 행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릿은 후천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며 적절한 개입과 교육 및 모델링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이를 위해 연습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연습이 아니라 의식적 연습을 통해서 그릿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수행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Duckworth et al., 2011). 학생에게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실험, 과제, 미션을 통해 지속적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그릿의 중요한 가치와 작용을 인식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어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양성시켜야 한다. 인간은 교육적 존재로서 특히 가소성이 강한 중학생에게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그릿을 의식적으로 키워야 한다.

또한,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은 그릿을 예측하는 요인이므로(Borton & Grelle, 2013), 그릿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장 마인드셋(Dweck, 2010)이 필요하다는 신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즉, 지능이나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의지나 노력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변화신념(Dweck, Chiu, & Hong, 1995)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변화신념을 가진 학생들이 그릿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창의적 사고나 창의적 문제해결력도 높았다(Piao & Bak, 2010; So, 2016). 따라서 학생에게 도전적 과정에서 항상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소질과 천명이 아니라 노력과 끈기를 많이 칭찬해주며 결과보다 과정 및 노력의 가치, 자아성장의 의미를 더 중요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그릿과 행복감이 창의성의 예측변인임을 밝히고 행복감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릿으로 인해 수반된 성취감, 즐거움, 행복감 등의 긍정적 경험체험을 통해 창의성, 자아효능감, 창의적 사고와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릿을 키우는 과정에서 학생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호기심, 상상력, 도전심, 모험성을 자극하고 창의성 발달에 큰 의미가 가지고 있다. 우수한 인격특성인 그릿과 넉넉한 심리자원인 행복감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창의성 과정에서 큰 힘을 제공해 줄 것이다.

References

- Amabile, T. M. (1990). Within you, without you: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and beyond. In M. A. Runco, & R. S. Albert (Eds.), *Theories of creativity* (pp. 61-91). California, USA: Sage Publications.
- Amabile, T. M. (1996). *Creativity in context: Update to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Boulder, CO: Westview.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owman, N. A., Hill, P. L., Denson, N., & Bronkema, R. (2015). Keep on truckin' or stay the course? Exploring grit dimensions as differential predictors of educational achievement, satisfaction, and intention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6(6), 639-645. doi:10.1177/1948550615574300
- Borton, W., & Grelle, J. (2013). The dirt on grit: Examining relations with school adjustment, school performance, and theories of intelligence. Ditemu kembali dari, Retrieved from <http://psych.hanover.edu/research/Thesis12/papers/Borton%20Grelle%20IS%20Final.pdf>
- Cho, N. K., Kwon, J. H., & Jung, M. Y. (2017).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utonomy, mindset and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with gri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12), 45-69. doi:10.21509/KJYS.2017.12.24.12.45
- 국문: 조남근, 권정희, 정미예(2017). 대학생의 그릿과 자율성, 마인드셋 그리고 학업지속 의향 간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4(12), 45-69.
- Cho, S. H., Ahn, D. H., & Han, S. S. (2005). Affective components as predictors of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in Korean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3), 745-760.
- 국문: 조석희, 안도희, 한석실(2005). 초등학교 고학년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특성에 대한 경로 분석. *교육심리연구*, 19(3), 745-760.
- Cho, S. J. (2017). *An effect of parents' social support on middle school students' happiness: The moderating effect of grit*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국문: 조수진(2017).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Choi, H. S., & Yang, S. J. (2018). Mediating effects of gri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in high school

-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1(2), 105-123. 국문: 최효선, 양수진(2018). 고등학생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림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2), 105-123.
- Conner, T. S., & Silvia, P. J. (2015). Creative days: A daily diary study of emotion, personality, and everyday creativity.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9(4), 463-470. doi:10.1037/aca000002
- Crede, M., Tynan, M. C., & Harms, P. D. (2017). Much ado about grit: A meta-analytic synthesis of the grit liter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3), 492-511.
- Csikszentmihalyi, M. (1996).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pp. 76-98). New York, USA: Harper Collins.
- Deci, E. L., Koestner, R., & Ryan, R. M. (1999). A meta-analytic review of experiments examining the effects of extrinsic rewards on intrinsic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5(6), 627-668.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doi:10.1207/s15327752jpa4901_13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Duckworth, A. L., & Gross, J. J. (2014). Self-control and grit: Related but separable determinants of succes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5), 319-325. doi:org/10.1177/0963721414541462
-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doi:10.1080/00223890802634290
- Duckworth, A. L., Kirby, T. A., Tsukayama, E., Berstein, H., & Ericsson, K. A. (2011). Deliberate practice spells success why grittier competitors triumph at the national spelling be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2), 174-181. doi:10.1177/1948550610385872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doi:10.1037/0022-3514.92.6.1087
- Duckworth, A. L., Quinn, P. D., & Seligman, M. E. P. (2009). Positive predictors of teacher effectivenes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6), 540-547. doi:10.1080/1743976090

3157232

- Dweck, C. S. (2010). Even geniuses work hard. *Educational Leadership*, 68(1), 16-20.
- Dweck, C. S., Chiu, C. Y., & Hong, Y. Y. (1995). Implicit theories and their role in Judgments and reactions: A word from two perspectives. *Psychological Inquiry*, 6(4), 267-285.
- Eccles, J. S., Midgley, C., & Adler, T. (1984). Grade-related Changes in the School Environment: Effects on Achievement Motivation. In J. G. Nicholls (Ed.), *The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 (pp. 283-331). Greenwich, UK: JAI Press.
- Finch, J. F., West, S. G., & MacKinnon, D. P. (1997). Effects of sample size and nonnormality on the estimation of mediated effects in latent variable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2), 87-107.
-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USA: Basic Books.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 Fredrickson, B. L., Mancuso, R. A., Branigan, C., & Tugade, M. M. (1999). The undoing effect of positive emotions. *Motiv Emot*, 24(4), 237-258.
- George, A. B., Charles, L. B. (2013). Regulatory flexibility: An individual differences perspective on coping and emotion regulation.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8(6), 591-612. doi:10.1177/1745691613504116
- Guilford, J. P. (1959). Three faces of intellect. *American Psychologist*, 14(8), 469-479.
- Ha, H. S. Lim, H. J., & Hwang, M. H. (2017). The role of grit, goal perception, conscientiousness and resilience in academic adjust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8(1), 371-388. doi:10.15703/kjc.18.1.201702.371 ㉞ 국문: 하혜숙, 임효진, 황매향(2017). 학업적응에서 끈기(Grit)와 목표의식, 성실성, 탄력성의 역할. **상담학연구**, 18(1), 1-18.
- Hah, J. H. (2003). A developmental study of creative thinking and problem finding think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7(1), 315-331. ㉞ 국문: 하주현(2003). 창의적 사고와 문제발견 사고의 연령의 따른 차이. **교육심리연구**, 17(1), 315-331.
- Hah, J. Y., & Park, E. H. (2013). Relationship between family environment and creative thinking & creative personality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13(3), 123-144. ㉞ 국문: 하주현, 박은희(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정환경과 창의적 사고 및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 **창의력교육연구**, 13(3), 123-144.
- Han, S. Y., & Park, Y. H. (2018). Differences in middle school students' behavioral control and self-determination by grit type. *The Journal of Instructional Method*,

- 30(1), 73-101. doi:10.17927/tkjems.2018.30.1.73 ㉞ 국문: 한수연, 박용한(2018). 중학생의 그릿 유형에 따른 행동조절과 자기결정동기의 차이. **교육방법연구**, 30(1), 73-101.
- Ivcevic, Z., & Brackett, M. A. (2014). *Does Grit predict Creativit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USA.
- Ivcevic, Z., & Brackett, M. A. (2015). Predicting creativity: Interactive effects of openness to experience and emotion regulation ability.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9(4), 480-487.
- Jang, Y. S., & Cho, J. H. (2010). The effects of parents' creative personality and creative home environment on young children's creative personality. *Education Reserch Institute*, 18(2), 309-336. doi:10.24159/joec.2010.16.2.309 ㉞ 국문: 장영숙, 조정화(2010). 부모의 창의적 인성과 창의적 가정환경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16(2), 309-336.
- Je, O. E. (2019).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everyday creativ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y grit typ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1), 1-26. doi:10.22251/jlcci.2018.18.21.1 ㉞ 국문: 정은이(2018). 대학생의 그릿 군집 유형에 따른 일상적 창의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차이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1), 1-26.
- Jung, C. W. (2014).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everyday creativity,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5(1), 147-167. doi:10.18612/cnujes.2014.35.1.147 ㉞ 국문: 정찬우(2014).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력, 일상적 창의성,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교육연구논총**, 35(1), 147-167.
- Jung, D. W. (2019). *A comparison on creativity, creative personality, and grit of gifted and regular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Gachon University, Seongnam, Korea. ㉞ 국문: 정다운(2019). **영재중학생과 일반중학생의 창의성, 창의적 인성, 그릿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 Kang, S. W., & Hyun, S. Y.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I/E motivation, creative personality, and creative performa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4(1), 115-116. ㉞ 국문: 강선옥, 현성용(2004). 초등학생의 내외동기, 창의적 인성 및 수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4(1), 115-116.
- Kim, H. J. (2010). The effect of home environment on children's creative personality. *Journal*

-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0(2), 121-146. ㉞ 국문: 김현정(2010). 아동의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2), 121-146.
- Kim, J. W. (2005).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temperament,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creative personalit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4), 933-951. ㉞ 국문: 김정원 (2005). 아동의 기질 및 양육태도와 창의성향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9(4), 933-951.
- Kim, M. S., & Choi, Y. S. (2014). The effects of creative environments on the students' creative personality.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and Talented*, 13(3), 205-224. doi:10.17839/jksgt.2014.13.3.205 ㉞ 국문: 김미숙, 최예슬(2014). 창의적 환경 유형별 초등학생의 창의인성 특성 분석. **영재와 영재교육**, 13(3), 205-224.
- Kim, S. H., & Jo, J. O. (2016). Influence of self-regula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on creative personality in preschoole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0(5), 349-371. doi:10.18023/kjece.2016.36.5.014 ㉞ 국문: 김소향, 조준오(2016).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정서조절력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6(5), 349-371.
- Kim, Y. M.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tyles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mediated by grit and satisfaction of psychological basic needs in early adulthood*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㉞ 국문: 김유민(2018).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그릿(Grit)과 기본심리욕구 만족도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Kim, Y. Z. (Ed.) (2011). *Seligman's Positive Psychology*. Gyeonggi, Korea: Waterpure. ㉞ 국문 : 김인자 역(2011). **미턴 셀리그만의 긍정 심리학**. 경기: 물푸레.
- Koo, K. H., & Kim, S. S. (2013). Th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on creativity and their teaching efficacy.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7(2), 287-304. ㉞ 국문: 구광현, 김성숙(2013).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창의성과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7(2), 287-304.
- Lee, G. S., Do, S. J., & Song, H. A. (2016).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 and university adjustment of freshm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3), 53-73. ㉞ 국문: 이귀숙, 도수정, 송현아(2016). 대학신입생의 성격특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3), 53-73.
- Lee, M. R., Lee, H. W., & Tak, J. H.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fficacy and gri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 491-512. doi: 10.22251/jlcci.2017.17.2.491 ㉞ 국문: 이미란, 이혜원, 탁정화(2017). 예비유아교사의 자기

- 효능감과 그릿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7(2), 491-512.
- Lim, H. J. (2017).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grit, creative disposition, and creative thinking. *The Journal of Creativity & Problem Solving*, 13(2), 45-65. ￼ 국문: 임효진 (2017). 그릿(Grit)과 창의적 성향, 창의적 사고의 구조적 관계. **사고개발**, 13(2), 45-65.
- Lim, H. J. (2017). An exploratory study on grit's factor structure and its validity. *Asian Journal of Education*, 18(2), 169-192. ￼ 국문: 임효진(2017). 그릿(Grit)의 요 인구구조와 타당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8(2), 169-192.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30-855. doi:10.1037/0033-2909.131.6.803
- Minister of Education of Korea (2015). *A General Discussion of the Curriculum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Sejong, Korea: Ministry of Education. ￼ 국문: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세종: 교육부.
- Moon, S. Y., Park, Y. J., & Lee, B. G. (2016).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physical education students.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20(4), 719-730. ￼ 국문: 문성연, 박영진, 이봉근(2016).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스포츠학회지**, 20(4), 719-730.
- Nicholls, J. G. (1972). Creativity in the person who will never produce anything original and useful: The concept of creativity as a normally distributed trait. *American Psychologist*, 27(8), 717-727.
- Park, H. R., Pyo, J. M., & kim, N. R. (2019). A study on the factors to affect school happiness according to academic achieve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6(3), 59-86. ￼ 국문: 박현린, 표정민, 김누리(2019).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그릿과 행복추구경향이 대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6(3), 59-86.
- Park, S. B. (2013).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ubjective well-being, creativity and school achievement perceived by undergraduate students: Focus on fredrickson's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1(4), 249-273. ￼ 국문: 박상범(2013). 대학생이 지각한 행복감과 창의성 그리고 학업성적 간의 구조적 관계: Fredrickson의 긍정적 정서의 확장-축적이론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1(4), 249-273.
- Park, S. H. (2008). Creativity and happiness in adulthood. *Korean Society for Creativity*

- Education*, 8(2), 57-72. ㉞ 국문: 박숙희(2008). 성인기 창의성과 행복감. **창의력교육연구**, 8(2), 57-72.
- Paul, R., & Elder, L. (2009).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Ethical Reasoning: A Unity of Opposites. In D. Ambrose, & T. L. CROSS (Eds.), *Morality Ethics and Gifted Minds* (pp. 117-131). New York, NY: Springer.
- Peterson, C., Ruch, W., Beermann, U., Park, N. S., & Seligman, M. E. P. (2007). Strengths of character,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3), 149-156.
- Piao, X. F., & Bak, B. G. (2010). Exploration of the casual structure among integrative creativity, belief, motivation, learning, and subjective well-being: A combination of creativity process model and dweck's model.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4(3), 633-660. ㉞ 국문: 박상범, 박병기(2010). 주관적 안녕에 대한 통합창의성, 신념, 동기, 학습의 인과구조 탐색: 창의성 과정과 Dweck 모형의 결합. **교육심리연구**, 24(3), 633-660.
- Piirto, J. (1992). *Understanding those Who Create*. Dayton, OH: Ohio Psychology Press.
- Plucker, J., Beghetto, R., & Dow, G. (2004). Why isn't creativity more important to educational psychologists? Potential, pitfalls, and future directions in creativity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ist*, 39(1), 83-96. doi:10.1207/s15326985ep3902_1
- Pyo, J. G. (2018).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grit on life satisfaction and scholarly creativity: Mediating effect of flow experience in learning.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and Talented*, 17(1), 25-46. doi:10.17839/jksgrt.2018.17.1.25 ㉞ 국문: 표정민(2018). 대학생의 그릿이 삶의 만족도와 학문적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영재와 영재교육**, 17(1), 25-46.
- Rojas, J. P., & Usher, E. L. (2012). *Exploring the correlations among creativity, grit, and mathematics achievement in early adolescence*. Lexington, USA: Interdisciplinary Graduate Student Conference for Research on Children at Risk.
- Rosenholtz, S. J., & Simpson, C. (1984). The formation of ability conceptions: Developmental trend or social construc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4(1), 301-325.
- Seo, H., A., & Eom, S. J. (2019). The influence of the creative personalit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heir grit: The mediating effect of happiness. *The Journal of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18(2), 173-197. doi:10.30761/ece.2019.18.2.173 ㉞ 국문: 서현아, 엄세진(2019).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 행복감의 매개효과. **생태유아교육연구**, 18(2), 173-197.

- Shechtman, N., DeBarger, A. H., Dornsife, C., Rosier, S., & Yarnall, L. (2013). *Promoting grit, tenacity, and perseverance: Critical factors for successio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USA: Department of Education.
- Shin, M. H., & Koo, J. S.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creativity: Happy persons are more creativ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ocial and Personality*, 24(3), 37-51. doi:10.21193/kjspp.2010.24.3.003 ㉞ 국문: 신민희, 구재선(2010). 행복과 창의력의 관계: 행복한 사람이 더 창의적이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3), 37-51.
- Singh, K., & Jha, S. D. (2008).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nd grit as predictors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Indian Academy and Applied Psychology*, 34(2), 40-45.
- So, Y. H. (2016). Structure relationships among creative mindset, student engagement,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for undergraduates in the college of educ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eativity and Problem Solving*, 12(4), 1-22. ㉞ 국문: 소연희 (2016). 사범대학생의 창의성에 대한 변화신념, 학습참여,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구조적 관계. *사고개발*, 12(4), 1-22.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1982), 290-312. doi:10.2307/270723
- Sternberg, R. J. (1988). *The Nature of Creativity*. NY,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rnberg, R. J. (2012). Creativity as a decision: Comment. *American Psychologist*, 57(5), 376.
- Sternberg, R. J., & Lubart, T. I. (1991). An investment theory of creativity and its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34(1), 1-31. doi:10.1037//0003-066X.57.5.376a
- Sternberg, R. J., & Lubart, T. I. (1996). Investing in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1(7), 677-688.
- Thrash, T. M., Elliot, A. J., Maruskin, L. A., & Cassidy, S. E. (2010). Inspiration and the promotion of well-being: Tests occausality and medi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3), 488-506. doi:10.1037/a0017906
- Urban, K. K. (1990). Recent trends in creativity: Research and theory. *Western European Journal for High Ability*, 1(1), 99-113. doi:10.1080/0937445900010114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 West, M. R., Kraft, M. K., Finn, A. S., Martin, R., Duckworth, A. L., Gabrieli, C. F. O., & Gabrieli, J. D. E. (2014). Promise and paradox: Measuring students' non-cognitive skills

- and the impact of schooling.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38(1), 148-170. doi:10.3102/0162373715597298
- White, J. (1990). *The Aims of Education*. London, UK: Routledge.
- Williams, F. E. (1990). *Creativity Assessment Packet*. NY, USA: DOK Publishers.
- Yang, Y.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1972 to 2004: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doi:10.1177/000312240807300202
- Yun, K. M., & Yoo, S. H. (2015). Relationship between everyday crea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3(4), 105-127. ☞ 국문: 윤경미, 유순화(2015). 대학생의 일상적 창의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23(4), 105-127.
- 董奇(1993). 儿童创造力发展心理学. 浙江: 浙江教育出版社. ☞ 영문: Dong, Q. (1993). *Developmental psychology of creativity in children*. Zhejiang, China: Zhejiang Education Press.
- 胡卫平, 胡耀岗, 韩琴(2006). 青少年语文创造力的发展研究. *心理发展与教育*, 22(3), 70-74. ☞ 영문: Hu, W. P., Hu, Y. G., & Han, Q. (2006). The development of creativities on chinese language in adolescents.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Education*, 22(3), 70-74.
- 蒋文, 蒋奖, 杜晓鹏, 古典, 孙颖(2018). 坚毅人格与学业成就的关系: 学习投入的中介作用. *中国特殊教育*, 2018(4), 93-98. ☞ 영문: Jiang, W., Jiang, J., Du, X. P., Gu, D., & Sun, Y.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chool Engagement. *Chinese Journal Special Education*, 2018(4), 93-98.
- 林幸台, 王木荣(1994). *威廉斯创造力测验指导手册*. 台北: 心理出版社. ☞ 영문: Lin, X. T., & Wang, M. R. (1994). *Williams's Guide to Creativity Tests*. Taipei, Taiwan: Psychological Publishing.
- 刘彩谊, 张惠敏, 张莲(2013). 父母养育方式对中学生创造力倾向和自我效能感的影响. *中国健康心理学杂志*, 4(21), 115-117. ☞ 영문: Liu, C. Y., Zhang, H. M., & Zhang, L. (2013). The influence of parental rearing style on students' creativity tendency and self-efficacy. *China Journal of Healthy Psychology*, 4(21), 115-117.
- 邱林, 郑雪, 王雁飞(2008). 积极情感消极情感量表(PANAS)的修订. *应用心理学*, 14(3), 249-254. ☞ 영문: Qiu, L., Zheng, X., & Wang, Y. F. (2008). Revision of the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ale. *Applied Psychology*, 14(3), 249-254.
- 任菲菲(2008). 中小學生創造力的發展及其與家庭因素和自主性動機的關係模式. 博士学位论文, 中国山东师范大学. ☞ 영문: Ren, F. F. (2017).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nd its relationship with family factors and*

- autonomous motiv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handong Normal University, Jinan, China.
- 王永跃, 张玲(2017). 心理弹性如何影响员工创造力:心理安全感与创造力自我效能感的作用. *心理科学*, 41(1), 120-126. ☞ 영문: Wang, Y. Y., & Zhang, L. (2017). How psychological resilience influence employees' creativity: The role of psychological safety and creative self-efficacy. *Journal of Psychological Science*, 41(1), 120-126.
- 沃建中, 王烨晖, 刘彩梅, 林崇德(2009). 青少年创造力的发展研究. *心理科学*, 23(3), 535-539. ☞ 영문: Wo, J. J., Wang Y. H., Liu, C. M., & Lin, C. D. (2009). *Development of creativity: Evidence from Chinese adolescents*. *Chinese Psychological Science*, 23(3), 535-539.
- 谢娜, 王臻, 赵金龙(2017). 十二项坚毅量表(12-Item grit scale) 的中文修订. *中国健康心理学杂志*, 25(6), 99-102. ☞ 영문: Xie, N., Wang, Z., & Zhao, J. L. (2017). Chinese revision of 12-Item grit scale. *China Journal of Healthy Psychology*, 25(6), 99-102.
- 许乃丽(2019). 初中生创造力的发展轨迹: 父母教养行为的影响及性别差异. 硕士论文, 中国山东师范大学. ☞ 영문: Xu, N. L. (2019).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creativity: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 and gender differenc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handong Normal University, Jinan, China.
- 闫鹏辉(2019). 高中生日常创造性行为与主观幸福感的关系: 创意自我效能感的中介作用及干预研究. 硕士论文, 中国河北大学. ☞ 영문: Yan, P. H.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creativity behavior and subjective well-being of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creative self-efficacy and intervention research*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Hebei University, Jinan, China.
- 张鹏程, 丁梦夏, 王灿明(2017). 积极情绪体验对创造力影响. *心理与行为研究*, 5(15), 39-44. ☞ 영문: Zhang, P. C., Ding, M. X., & Wang, C. M. (2017). The effect of positive experience on creativity based on an empirical study. *Studies of Psychology and Behavior*, 5(15), 39-44.
- 张远丰(2016). 城市中小学生幸福指数与坚毅品质, 家庭环境的关系研究. 中国南昌大学. 硕士论文. ☞ 영문: Zhang, Y. F. (201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urban prim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happiness index, grit and family environment*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Nanchang University, Nanchang, China.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7). The 13th Five-year Development Pla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www.moe.gov.cn/jyb_xxgk/moe_1777/moe_1778/201701/t20170119_295319.html ☞ 영문: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The 13th Five-year Development Pla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www.moe.gov.cn/jyb_xxgk/moe_1777/moe_1778/201701/t20170119_295319.html

邹琼, 张燕红, 马金平(2017). 工作(组织)匹配, 情绪幸福感对创新行为的效应. *企业经济*, 36(9), 95-101. ☞ 영문: Zou, Q., Zhang, Y. H., & Ma, J. P. (2017). The effects of job organization fit and emotional well-being on innovation behavior. *Enterprise Economy*, 36(9), 95-101.